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7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18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됨

19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21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22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3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3 묵상하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에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고난 받고 죽으신 뒤, 영으로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그분과 매일을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매일 샘솟듯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다보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을 덮습니다(21절). 그렇게 성령님과 매일 소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24절),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4 적용하기

주님은 나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직접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나요?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두드리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도록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기를 기대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보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 요즘 나를 슬프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께 오늘 무엇을 구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니 그 어니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기도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고하심

25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26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7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28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미 세상을 이기심

29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30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3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33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3 묵상하기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았지만(29-30절)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말입니다(32절).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던 죽음과 멸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나는 무엇이든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26-27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맞서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33절).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세상은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나를 흔들어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4 적용하기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건강을, 집안을, 사람을 자신의 믿는 구석으로 삼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27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26절),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33절)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영적 전쟁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학교와 가정, 친구 관계 등 나의 생활 영역 속에서 특별히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이고, 담대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나의 믿는 구석은 무엇인가요? 혹시 예수그리스도가 아닌 성적, 외모, 사람, 부모님 등이 나에게 믿는 구석이 아니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저의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기도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기도하시는 예수님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2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5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3 목상하기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1절)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는 영광은 흔히들 생각하는 사회적 성공, 멋들어진 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구하는 영광은 ‘십자가 죽음’ 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기꺼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나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고 영접했나요? 영생(영원한 생명)은 그분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4 적용하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십자가는 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얻는 ‘영광’(4절)은 싫어하고 세상에서 잘되는 ‘영광’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영생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때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한 때와 무슨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피하려고 했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기도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하나 되게 하소서

6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9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0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11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3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19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묵상하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드린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11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17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받겠지만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15절),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18-19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뤄야 하는 부담스러운 미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15절) 거룩하게 하셔서(17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학교나 가족, 모임 등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요즘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하고 싶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영적 싸움임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기 도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하나 되게 하소서

20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하소서

24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묵상하기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똑같이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22-23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된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24절). 제자들을 비롯해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맛보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많은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영혼을 위한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가정, 교회 등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나요?
만약 하나 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주님과 제가 하나이듯이 믿음의 사람들과도 하나 되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기도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7장 (겻세마네 동산의)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예수께서 잡히심

1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3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4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6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8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 주라.” 9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11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영광을 보게 하소서

12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사람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13 먼저 그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14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3-1 묵상하기 (요 18:1~11)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셔서입니다. 예수님은 체포하러 온 자들 앞에서 스스로 정체(正體)를 밝히시며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사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맡기신 십자가 사명의 길을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감당하는 길을 가야합니다.

3-2 묵상하기 (요 18:12-14)

예수님을 끌고 가 먼저 심문한 사람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가야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 이론을 펼친 사람이고 안나스가 심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과 유대 권력자들 간의 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것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는 속죄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대속의 길입니다.

4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편을 선택할 일은 무엇인가요?
- 나의 작은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5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아시면서도 초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 기도